

피난 생활 보고 · 避難生活報告 3 4

상상도 못한 환난을 당하는 인생이 다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환난이 닥쳐올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지진 재해 직후에 차 15 대로 후쿠시마현을 탈출하며 경찰서에 뛰어들어 “편찮으신 분이 있으니 기름 좀 나눠주십시오” 라고 신신당부했을 때의 곤혹스러웠던 제 표정을 생각해봅니다. 그 와중에 우리들은 사력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.

어쩌면 이 여정은 아직도 멀어 한 고개 또 한 고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과연 그때까지 우리들은 기력이 남아 있겠는지요? 성경말씀에 모세가 40 년 걸친 광야의 여정을 마쳤을 때 “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”라고 말씀하십니다.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여정을 마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

스포츠 선수는 가끔 은퇴 회견에서 “체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은퇴를 결의했습니다”라고 고백합니다. 현역을 유지하는데에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일까요?

가끔 버틸 수 있는 한계 점까지 자신을 몰아넣기도 하며 어느 때는 한계를 넘어 사력한 후에 자주 듣는 말은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‘후회는 없다’는 한마디입니다.

그러고 보니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도 인생의 여정을 스포츠에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. 마음을 다해 달려 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고,,, 그 당시 배경으로는 올림픽 발상지가 된 그리스의 경기가 있었고 또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시대가 있었습니다. 새벽을 향해 쉬지 않고 달리는 그들에게는 에너지가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.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여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산고가 필요했겠는지요.

바울 속에 원래 그러한 소질이 있었는 지 아니면 역사의 무대가 그 역할을 그에게 명해 필요한 힘이 그 때마다 더해진 것인지요?

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개국의 역사를 만든 메이지 사람들 속에 약동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. 그리고 혹시 우리들 속에도 저 상상을 초월한 거대지진의 와중에서 부딪치거나 휘말리는 중에 뭔가 마그마같은 힘이 가해졌거나 창조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런 희미한 예감 중에 미래의 희망으로 연결되는 이정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

후쿠오카에서 8 월 18 일 사토 아키라(佐藤 彰)